



#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십시오

배 포 일	2022. 5. 3.(화)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 매	
담당	통일·북방연구센터	집필자	김 규 남 연 구 원	kgn7@rig.re.kr 033-250-2915

## 누구를 위한 「국방개혁 2.0」 인가? 강원연구원, 「국방개혁 2.0」 추진 실태 검토보고서 발간

- 강원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석중) 통일북방연구센터에서는 “누구를 위한 「국방개혁 2.0」 인가?” 보고서(통일·북방정책포커스 제22-2호)를 통해 현재 국방부 주도로 추진 중인 국방개혁의 실태를 제시하고 향후 정부가 관여하여 접경지역 발전과 연계된 국방개혁 추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보고서에서는 육군 부대를 해체하여 약 10만 명의 병력 감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방시설 유지관련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현 국방개혁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 군부대 해체 및 이동 후 이전적지(移轉跡地)는 책임지역 인수부대가 계속 사용하여 소수 병력이 광범위한 지역에 주둔하다 보니 군 시설유지비는 2018년 10,445억 원에서 2019년에는 13,657억 원으로 1년간 약 30% 증가했다. 또한 부대와 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방시설물은 계속 신축하여 2020년에만 1,711동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 보고서는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이전적지는 미활용 군용지로 분류, 접경지역에 양도하여 국방개혁과 동시에 접경지역 지속발전 가능성을 담보함으로써 새로운 해법을 모색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 해외 국방개혁 사례 분석을 통해 각국은 관련 법령에 의거 이전적지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활용가능 여부를 협의하여 필요시 대부분 무상으로 양도하여 지역발전에 활용했으며, 그 결과 일부 지역은 군 주둔 이전보다 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뤘다고 분석했다.
  - 이와 함께, 국방개혁 추진은 군 주도에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국방개혁의 목적과 군과 협력하던 접경지역 경제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종전부지의 해당 지자체 무상양도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등 민군상생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 보고서는 관련 법률을 검토하며 종전부지 민수전환에 관한 제약요인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제4절)』은 ‘공공시설 용지의 설치 및 무상귀속’ 과 관련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공익사업 항목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또한 정부와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재·개정을 통해 ① 정부위원회가 국방부의 국방개혁을 조정 통제토록 하고 ② 국방개혁에 따른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종전부지를 미활용 군용지로 분류. ③ 국방개혁 과제에 접경지역 및 군사기지 주변 문제를 반영, 접경지역의 지속발전을 담보해야 한다.
- 김규남 연구원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며 선전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의 리더십과 민군이 하나가 되어 대응하기에 가능한 일” 이라고 했다.

- 또한, 현대전에서 국가안보는 군(軍)만의 책임 영역이 아니며 특히 협력안보를 위해 민·관·군·경의 통합 방위체제 구축이 요구되며. 국방개혁 과정 역시 민군협력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시너지 발휘하기에 군은 작전 준비에 앞서 지역주민을 고려하는 상생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 이에 현재 북과 대치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협력안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군과 민간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의 관계(水魚之交)처럼 서로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 민군이 하나(원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 정보게시판 (<http://www.rig.re.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첨부1. 통일·북방정책포커스 제22-2호(누구를 위한 「국방개혁 2.0」인가?)  
첨부2.

<표-1> 국방중기계획 국방비 증가 및 전망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안)
국방비	40조 3천억원	43조 1천억원	46조 7천억원	50조 3천억원	52조 8천억원	54조 6.112억원
증가율		7.0%	8.2%	7.4%	5.4%	3.4%

자료 : 국방부 발표 자료

<표-2> 연도별 국방시설 증가 현황 (단위: 동)

구분	2018	2019	2020
합계	113,628	114,229	115,940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필요 시설	56,733	56,961	57,359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 시설	306	305	298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 시설	15,751	15,822	15,801
진지(陣地) 구축시설	6,540	6,403	6,439
군사 목적을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1,761	1,772	1,795
외국군시설,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휴양 시설	32,537	32,466	34,248

자료 : 국방부. 국회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결산분석, 2021.8). p.203.

<표-3> 국방 시설유지비 추이

(단위 : 억 원, %)

연도	2010	2012	2014	2015	2017	2018	2019
합 계 (시설유지운영)	5,928 (100)	6,768 (100)	7,332 (100)	8,399 (100)	9,300 (100)	10,445 (100)	13,657 (100)
공공요금	2,844 (48.0)	3,578 (52.9)	3,752 (51.2)	4,229 (50.4)	4,562 (49.1)	4,950 (47.4)	4,913 (36.0)
시설유지 관리비	3,084 (52.0)	3,190 (48.1)	3,580 (48.8)	4,170 (49.6)	4,738 (50.9)	5,495 (52.6)	8,744 (64.0)

주 : 괄호는 공공요금과 관리비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 국방부, 『2020 국방통계연보』, (기획관리관실, 국방부, 2020. 12), p.189. 참조